교통사고 없는 세상 만들자

광주일보·손해보험협회 호남지부 공동 캠페인

② 교통사고 원인 분석해 보니

보행자 사고가 전체의 59.4%나
일요일 사망 크게 늘어 '운전 주의'

광주·전남지역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의식 결여가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8월까지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광주 5천105건 ▲전남 6천895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3.8%, 2.1% 줄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사망자 수는 ▲광주 91명 ▲전남 35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0%, 8.9%가 증가했다.

사고 발생은 줄어드는 데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고 발생시 사람이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게 되는 차량 대 보행자의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59.4%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비율이 24.6%로, 지난 2000년 이후 노인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노인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노인들의 활동이 커지면서 무단횡단 등 보행중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보행자 사고 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올해 1~6월까지 광주지역 ▲서구 83.3% ▲북구 69.2%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남지역 보행자 사고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7% 증가했다. 특히 전남의 경우 농번기와 행락철인 4~5월 사이에 경운기 등 농기계 사고가 40%가량 증가하면서 사망자 숫자를 늘렸다.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크게 늘어났다.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5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일요일 사망자 비율은 지난 2006년 17.3%에서 올해는 21.7%로 증가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기형 교수는 "노인들의 경우 다리나 몸이 불편해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많고, 신호에 대한 반응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보행중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최근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되면서 주말 피로감을 느끼며 운전하는 장거리 운전자들의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광주청 개청 이후 사망자 비율이 줄고는 있지만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교육과 고령자가 많은 지역은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전교조 수업거부는 불법"

대법 "학습·교육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손해배상해야"

전교조 교사들이 학원비리 척결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고 집회 및 시위를 벌이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서울의 S여고 학부모들이 학교 전교조 교사들의 수업거부로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시위·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 30만~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학습권 보장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며,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해 부여되는 것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업거부는 학생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학습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학생들 스스로 수업에 참석하지 않아 수업을 못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교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학습권은 집단적 기본권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개인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수업거부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피고들의 위법한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해 당시 대학진학을 앞둔 원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해 수학권이 침해되고 그 부모들의 교육권 또한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간다"고 판결했다.

서울의 S고교 3학년생의 학부모들은 이 학교 전교조 교사들이 2001년 4월~5월 23일까지 학교측의 인사부당함을 주장하며 부패재단 퇴진운동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자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주암호 유역 조류 주의보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암호 유역에 '조류(藻類)주의보'가 발령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일 "주암호 유역에 조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날 조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조류주의보는 클로로필-a 농도가 ㎥당 15~25㎎에 달하고, 남조류 세포가 ㎖당 500~5000마리를 초과하는 경우가 2회 연속 발생하면 발령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9월중 집중호우로 주암호 상류에 유기물, 질소, 인과 같은 영양물질이 다량 유입돼 조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청은 이에 따라 주암호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5m이하 심층수를 취수하고 정수처리 과정에서 활성탄을 투입하도록 조치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충장로 축제 불밝힌 가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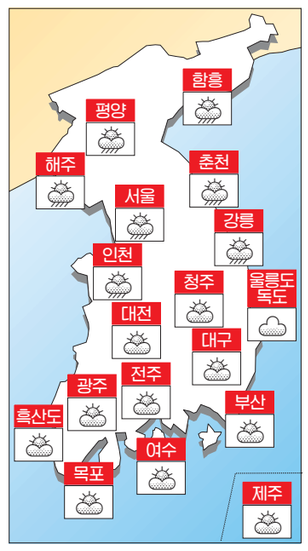
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 가로수에 '2007년 충장로 축제'를 알리는 전등이 내걸렸다. 금남로 중앙로 일대 100여그루에 매달린 전등은 축제가 끝나는 오는 14일 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불을 밝힌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구름 두둥실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다.

10월 2일 (음 8월 22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 많음	16~26℃
목 포	구름 많음	17~25℃
여 수	구름 많음	17~25℃
완 도	구름 많음	16~25℃
구 례	구름 많음	16~27℃
해 남	구름 많음	15~26℃
장 흥	구름 많음	14~26℃
고 흥	구름 많음	17~27℃
순 천	구름 많음	14~27℃
영 광	구름 많음	16~26℃
진 도	구름 많음	16~25℃
전 주	구름 많음	15~25℃
남 원	구름 많음	14~25℃
흑산도	구름 많음	18~22℃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0.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05:31 18:26 썰물〈 10:39 23:25
여 수 밀물〈 00:00 12:51 썰물〈 06:02 19:00

▲해뜸 06:27 ▲해짐 18:16 ▲달뜸 22:11 ▲달짐 12:4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수)	4(목)	5(금)	6(토)	7(일)	8(월)
날 씨						
최저/최고	17/26	17/26	17/26	18/24	17/25	16/24

나노 기술 이용 암진단 조영제 개발

광주과기원·전남대 연구팀

빠른 시간 안에 암을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조영제가 나노기술에 의해 개발됐다.

1일 광주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생명과학과 전상용(36)교수와 전남대 의과대 정용연(43)교수 연구팀은 최근 자성나노입자를 이용한 이중채널 암 진단법을 개발했다. 이 연구논문은 '열 경화로 안정된 자성 나노입자를 이용한 이중채널 암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화학회지 인터넷판 최근 호에 소개됐다.

전 교수팀은 현재 MRI용 조영제로 사용되고 있는 산화철 자성나노입자의 표면을 자체개발한 생체적합성 고분자로 코팅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이용, 생체로 들어온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세포(대식세포)에 인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조영제가 오랫동안 혈관을 순환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팀은 이 조영제를 암이 이식된 동물모델에 주사해 2시간 내에 MRI 및 광학영상 두 가지 진단기기를 통해 성공적으로 암을 진단했다.

전 교수는 "내년 상반기 전임상(사람에게 실험하는 임상실험 이전단계의 실험)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 조영제에 항암제를 적재할 경우 암치료 효율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해 관련기술을 특허 출원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베이징 직항로 30일 취항

아시아나 항공

광주와 중국 베이징(北京)을 잇는 신규 직항 항공 노선이 개설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30일부터 광주~베이징 노선에 취항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운항하며, 광주에서는 오후 3시, 베이징에서는 오전 10시 55분에 각각 출발한다.

이번 광주~베이징 직항 노선 개설로 그동안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을 이용해오던 번거로움이 해소돼 물류비 절감 효과와 함께 관광을 비롯한 국제 교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으세요"

질병관리본부는 내년 4월까지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0~12월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세균성 폐렴에 걸리거나 만성질환이 악화해 합병증에 시달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로 폐질환자와 심장질환자, 당뇨·암환자 등 만성질환자, 65세 이상 노인, 생후 6~23개월 소아, 임산부, 의료인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는 닭·오리·돼지 농장 종사자 등도 일반 인플루엔자와의 중복감염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장했다. /연합뉴스

취업률 100%
농산물품질관리사
FTA시대의 최고의 전문직
더 이상의 자격증은 없다
시험 : 12월 2일
• 농협공채 가산점 10점
• 공무원 시험 가산점 3점
• 관련업체 취업시 업체에 자금지원 (농산물 품질관리법 29조)
개강 10월 6일
(토, 일 - 주말반)
현대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앞 ☎062-236-2468

= 세무公務員 1800여명 올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2회 추가 공채 예정 =
7·9級 공무원 완전對備
강좌직종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소방직 전산직 복지직 토목직 건축직 물리학
◎최선을 다 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는 것은 허영에 불과하다!!◎
개강 : 10월 1일 주·야 (종합)반 모집 (현재상담접수중 수시접수가능)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10월 1일 대개강
전문대졸업(예정자), 4년제대학 2학년만 마치면
누구나 원하는대학,원하는 학과 3학년으로 편입가능!!
개설과목 : 영어, 수학, 생물, 화학, 유기화학, 물리, 한문, 한의학, TEPS
일반대, 사범대 편입반
약대, 한의대 편입반
MEET/ DEET 기본이론특강
TEPS 최단기 고득점반
김영편입·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뒤) ☎ 227-8088

일본수입의약품
Daum 카페검색 에서 마늘주사 후루민 을 쳐보세요.
http://cafe.daum.net/furumin
※마늘주사 후루민은 일본에서 20년동안 애용되고 있으며, 스포츠 선수들과 일상생활이 바쁘고 피곤한 연예인,직장인, 수험생들에게 널리 애용되고 있습니다.
■ 제조원 : Kyorin Rimedio 주식회사(日本)
■ 판매원 : (주)호원약품
Tel : (062)383-5883
마늘주사 후루민에 투자하실 병·의원 원장님 및 일반 투자자를 모십니다.